법 설하고 들을 줄 안다는 것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⑫ 진여자성

대덕들이여, 여러분이 우선 빛 그림자를 희롱하는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요, 모든 곳이 도를 닦는 이들이 돌아가는 집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의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은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오장육부도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무엇이 법을 설하고 들을 줄 아는 것인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역력한 것이 아무 모양도 없으면서 홀로 밝은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아는 것이니 만약 이것을 바로 알 것 같으면 조사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모든 시간 속에서 끊어짐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인데 단지 망정이 생겨 지혜의 작용이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본체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계에 윤회해서 가지가지 고통을 받는 것이다. 만약 산승의 본 것을 가지고 말하면 매우 심오하지 않음이 없으며 해탈의 경계가 아닌 것이 없다.

부처가 무엇인가? 임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일상에서 보고 듣고 하는 빛 그림자가 부처의 본래 근원이라고 말한다. '번뇌가 곧 보리' 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다. 빛 그림자(光影)란 견문각지(見聞覺知)하는 마음의 그림자다. 쉽게 말해 감각으로 보고 듣는 그 속에 부처의 정체가 내재해 있다는 말이다. 흔히 진여자성(眞如自性)이라고 말하는 그것이다. 몸을 놀리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이것의 작용이다.

이어 임제는 법을 설하고 들을 줄 아는 주인공이 그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대(四大)로 구성된 육체나 오장육부가 법을 설하거나 듣지 못하며, 허공도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밝은 것이 법을 설하고 듣는다 한다. 이것을 보는 이가 불조(佛祖)요, 중생들은 망정이 생겨 이것을 못 보고 지혜가 막혀 윤회를 면치 못하고 온갖 고통을 받는다 하였다. 영원한 인격적 생명인 진여자성은 심오하기 그지없으며 언제나 초월적 절대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일러 놓는다.

"모든 시간에 중간에 끊어짐이 없다(一切時中에 更莫間斷)"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위법(無爲法)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과거 어느 시점에 생겨나거나 미래 어느 시점에 소멸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없는 유무의 경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서산대사의 오도송(悟道頌)에 "머리털은 희어지지만 마음은 희어지지 않는다" 는 말이 나온다.

髮白心非白 머리털은 희어지지만 마음은 희어지지 않는다고

古人曾漏洩 옛사람들이 일찍이 말해 왔는데

今聞一聲鷄 지금 닭 우는 소리 한 번 듣고

丈夫能事畢 장부가 해야 할 일 마쳐버렸네

금강산에서 내려와 남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다 지리산 아래 어느 마을을 지나다 낮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지었다는 시이다. 첫 구의 뜻은 몸은 늙으나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다. 땅위에 있는 만물은 연륜이 있지만 허공인 하늘은 연륜이 없다는 말이다.

마음 마음 하지만 생각이 덮여 있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덮여 있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 한다. 전자를 진여심(眞如心)이라 하고 후자를 생멸심(生滅心)이라 한다. 진여심 그것이 깨달음(覺)이다. 그리하여 〈대승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을 정의하여 "마음의 본바탕에 생각이 떠나간 것(心體離念)"이라 하였다. 하늘에 구름이 끼면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걷히면 청명한 날씨가 되듯 허망한 생각이 떠나갈 때 빛이 나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진여에 의해서다. 바다가 강에 물이 있으니까 파도가 일어난다는 논리다. 파도가 쉰 고요한 물이 되어야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는 성능이 발휘된다. 이것이 해인삼매(海印三昧)요 이것이 선(禪)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佛性은 수릉엄삼매

〈首楞嚴三昧〉



세상 속 경전읽기

⑫ 수릉엄삼매의 5종(種) 이름

을(乙)이라는 사람은 갑(甲)의 아들이고, 병(丙)의 아버지이며, 정(丁)의 친구이다. 회사에서는 과장이다. 을(乙)은 이와 같이 처한 곳에 따라 아들, 아버지, 친구, 과장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붓다가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娑羅雙樹) 아래에서 열반에 들 때에 대중에게 설한 경이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다. 이 중 북량(北涼)의 담무참(曇無讖) 번역본(T0374)을 〈북본열반경(北本涅槃經)〉이라고도 한다. 송(宋)의 혜엄(慧嚴) 번역본(T0375)은 〈남본열반경(南本涅槃經)〉이라고도 하며, 법현(法顯)이 번역한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을 참조하여 〈북본열반경〉의 번역에서 모호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재편집한 것으로, 내용은 〈북본열반경〉과 같다.

이 〈대반열반경〉 가운데,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의 성품이 제호(醍醐)와 같다"는 말이 나온다. 우유를 정제하면 유(乳), 낙(酪), 생소(生酥), 숙소(熟酥), 제호의 5가지 단계의 제품이 나오는데, 이 중 제호의 맛이 가장 좋다. '제호상미(醍醐上味)' 를 줄여 '제호' 라고도 하니, 제호는 불교에서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맛, 곧 가장 숭고한 부처의 경지를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수릉엄삼매가 제호와 같다는 것은, 삼매 중 가장 수승한 삼매라는 뜻이다.

이 수릉엄삼매로 인해 아누다라삼먁삼보디[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를 얻어 붓다가 탄생되니, 수릉엄삼매는 불모(佛母, 붓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또 수릉엄삼매로 인해 열반을 이루니, 붓다로 하여금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누리게 한다. 이러한 힘을 가진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는 위에 언급한 을(乙)의 경우처럼, 처한 경우에 따라 다섯 가지 이름으로 불리니, 수릉엄삼매 · 반야바라밀 · 금강삼매 · 사자후삼매 · 불성이다.

"불성(佛性)은 곧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이니 성품이 제호(醍醐, 우유를 가공한 식품 가운데 가장 맛이 좋은 최상품)와 같으며, 모든 붓다의 어머니이다. 수릉엄삼매의 힘으로써 모든 붓다들로 하여금 상락아정(常樂我淨,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게 하느니라. 모든 중생이 다 수릉엄삼매를 갖추었건만 닦아 행하지 않으므로 보지 못하며, 그러므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수릉엄삼매에 다섯 가지 이름이 있으니, 첫째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요 둘째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이요 셋째 금강삼매(金剛三昧)요 넷째 사자후삼매(師子吼三昧)요 다섯째 불성(佛性)이니, 그 짓는 바에 따라서 곳곳마다 이름을 얻느니라."

〈大般涅槃經 T0375_.12.0769b01–09〉

용수(龍樹)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주석한 논서인 〈대지도론(大智度論)〉은 〈마하반야바라밀경석론〉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수릉엄삼매를 '건상(健相, 건강한 모습)' 이라고 뜻번역하였다. 또 수릉엄삼매는 모든 삼매의 모습을 다 꿰뚫어 알고, 번뇌마(煩惱魔)나 천자마(天子魔)가 감히 파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수릉엄삼매란, 중국말로 '강건한 모습[건상(健相)]' 이라고 한다. 모든 삼매의 행상(行相)의 많고 적고 깊고 얕은 것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 마치 큰 장수가 병사들의 힘이 많고 적음을 아는 것과 같다. 또한 보살이 이 삼매를 얻으면 모든 번뇌마(煩惱魔)와 마(魔)의 백성이 능히 파괴할 수 없나니, 비유컨대 마치 전륜성왕의 주력부대의 장수가 가는 곳마다, 항복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과 같다." 〈大智度論 T1509_.25.0398c27–0399a02〉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⑱ 이해의 길 38

회통과 비빔밥

〈會通〉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비빔밥이 있다. 콩나물이나 시금치 등을 비롯한 각종 나물들을 밥과 함께 비벼서 먹는 간단한 음식이다. 그런데 밥과 나물들이 잘 어우러져 고유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고추장과 참기름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빔밥은 나물들 각자의 맛은 유지하면서도 공존과 조화라는 새로운 맛을 낸다. 이 음식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모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상징과도 같다.

비빔밥은 한국불교의 성격을 설명할 때도 종종 등장한다. 혹자는 한국불교를 가리켜 '비빔밥 불교' 라 부르기도 한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종파불교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 로 회통(會通)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회통이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會)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소통(通)한다는 뜻이다. 화엄이나 유식, 천태, 선 등 다양한 종파들은 저마다 고유한 사상과 전통, 의식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선을 수행하는 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화엄경〉과 〈법화경〉을 공부하며, 진언을 독송하기도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이런 한국불교의 성격을 비빔밥에 비유한 것이다.

회통이란 용어 앞에 원융(圓融)이라는 말이 더해지면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원융이란 글자 그대로 원만(圓)하여 막힘이 없다(融)는 뜻이다. 아무리 다른 사상과 문화가 만난다 해도 두꺼운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허물고 서로 소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한국불교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교 내의 다양한 사상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신앙과 회통하려는 모습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자들은 사찰에 가면 대웅전에 참배하고 자연스럽게 산신각이나 칠성각에 들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한국불교가 항상 원융 회통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다. 신라 때는 내 학설은 옳고 다른 학설은 그르다는 쟁론(爭論)이 '강과 바다' 를 이루고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선종과 교종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마다 여지없이 회통의 에너지가 작동하곤 했다. 한국의 불교 사상가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사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곤 했다. 원효나 지눌, 휴정 등은 회통불교의 전통을 확립한 대가들이다.

원효를 예로 들면, 그는 개합종요(開合宗要)라는 논리를 통해 당시 종파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는 각 종파에서 소의로 하고 있는 경론(經論)은 '하나인 마음(一心)' 의 펼침(開)이며, 이것을 모으면(合) 다시 일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각각의 종파 또한 일심을 펼친(宗) 것이며, 요약(要)하면 일심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를 물과 얼음, 수증기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은 필요에 따라 여러 모양의 얼음으로 펼칠 수 있으며, 이것을 녹이면 다시 물이 된다. 여름에 팥빙수를 먹기 위해서는 물을 얼려야 하며, 겨울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끓여야 한다. 건조한 공기를 촉촉하게 하려면 수증기도 필요하다. 물이나 얼음, 수증기는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H2O라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일심도 물과 같아서 필요에 따라 화엄이나 유식, 천태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 원효의 생각이었다. 참으로 멋진 발상이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아우르려는 성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DNA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회통사상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시하는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 말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불교사상을 담을 수 있는 양푼, 요즘말로 플랫폼과 같다 할 것이다. 그 양푼 옆에는 여러 음식들을 맛있게 버무릴 수 있는 고추장과 참기름이 늘 놓여있다. 남은 것은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않고 맛있게 비비는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